

재개된 PGA투어...임성재, 페덱스컵 랭킹 1위 유지

찰스 슈와브 챌린지서 공동 10위...시즌 6번째 '톱10'
오는 18일 RBC헤리티지 출전, 시즌 2승 사냥 나선다

임성재(22·CJ대한통운)가 약 3개월 만에 재개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도 강재함을 보여주며 페덱스컵 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임성재는 1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CC(파70·7209야드)에서 막을 내린 PGA 투어 찰스 슈와브 챌린지(총상금 750만달러)에서 최종합계 11언더파 269타로 공동 10위에 올랐다. 시즌 6번째 톱10.

PGA투어는 지난 3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라운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약 3개월간 중단됐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휴식기 속 선수들은 제대로 훈련을 소화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투어 중단은 임성재에게 더욱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임성재는 2019-20시즌 3월초 혼다 클래식에서 생애 첫 PGA 투어 우승을 차지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단 전까지 임성재는 14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1회를 포함해 톱10에 5번 이름을 올렸다. 당시까지 상금도 총 386만2168달러

(약 46억3000만원)로 2위였고, 평균타수도 69.623타로 10위였다. 또한 시즌 초반이기는 했지만 페덱스컵 랭킹에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도 올랐다.

임성재는 휴식기 동안 코치를 미국으로 불러 스윙을 점검하고 코스에서 라운드도 치르며 실전 감각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연습과 실제 경기는 차이가 크기에 재개된 PGA투어에서 보여줄 경기력은 미지수였다.

다행스럽게도 임성재의 경기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대회 기간 중 페어웨이 적중률은 67.86%로 출전한 선수 중 공동 9

위였다. 그린 적중률은 3라운드(55.56%)를 제외하고 다른 라운드에서 모두 70%를 넘기며 대체적으로 정교한 샷을 뽑았다.

그린 적중 시 평균 퍼트 수(Putts per GIR)가 1.720으로 30위에 머무른 것이 다소 아쉬웠다. 그래도 임성재는 이번 대회 중 단 하나의 더블보기도 범하지 않으면서 나흘 내내 60대 타수를 기록했다.

준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친 임성재는 페덱스컵 랭킹 1위도 지켰다. 이전 대회까지 1458점을 기록 중이던 임성재는 2위 저스틴 토마스(미국·1403점)에 55점 앞서 있었다.

한편 임성재는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되는 RBC헤리티지에 출전해 시즌 2승 및 페덱스컵 랭킹 1위 유지에 도전한다. RBC헤리티지는 총 출전 선수 154명 중 114명이 PGA 투어 우승 경험이 있어 뜨거운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임성재, 세계랭킹 21위로 상승

3개월 만에 재개된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톱10 진입에 성공한 임성재(22·CJ대한통운)가 세계랭킹 21위로 올라섰다.

임성재는 15일(한국시간) 발표된 남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4.1729를 기록, 지난 랭킹에서 2계단 상승한 21위에 자리했다.

임성재는 최근 3개 대회(1라운드 후 중단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제외)에서 우승(혼다 클래식)을 비롯해 모두 톱10에 진입했다. 2019-20시즌 톱10 진입 횟수는 6번이다.



김병현, 애리조나 역대 최고 불펜 투수 선정

MLB.com “승리 기여도 8.3으로 가장 높아”

김병현(41)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역대 최고의 불펜 투수에 선정됐다.

MLB.com은 14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최고의 불펜 투수를 뽑았다. 김병현은 애리조나의 역대 최고의 불펜 투수에 뽑혔다.

MLB.com은 “김병현의 대체선수대비 승리 기여도(WAR)는 8.3으로 구단 구원 투수 중 가장 높다”며 “2001년 월드시리즈

4차전과 5차전에서 리드를 지키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그가 애리조나 구단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었는지 잊혀지곤 한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잠수한 투수로서 솟아오르는 직구와 옆으로 크게 꺾이는 슬라이더로 김병현은 내셔널리그 타자들을 압도했다. 2001년에는 78경기에서 98이닝을 던지며 내구성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2001년 김병현은 5승6패 19세이브 평균 자책점 2.94를 기록하며 팀의 마무리로 안착했다. 월드시리즈 4차전과 5차전에서 연속 불펜세이브를 기록했던 것이 아쉽지만 팀의 첫 우승에서 김병현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었다.

김병현은 2002년 8승3패 42세이브 평균 자책점 2.04로 애리조나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2002년은 김병현이 유일하게 올스타에 선정된 시즌이기도 하다.

MLB 7월중순 개막 ‘50경기 시즌’ 전망

미국 메이저리그가 7월 중순 개막해 팀 당 50경기 정도를 치르는 초미니 시즌으로 열릴 전망이다.

USA투데이는 15일(한국시간)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일정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사무국은 16일 회의를 통해 개막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메이저리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까지 개막을 못하고 있다. 구단과 선수 노조는 시즌 개막 시 축소된 경기 수만큼 연봉을 삭감하는 방식에 합의했지만, 구단들이 추가 삭감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심화됐다.

최근 사무국은 2020시즌 팀 당 72경기를 소화하고 경기별 비례 연봉을 최대 80%까지 받는 방안을 선수노조에 제시했다. 하지만 선수노조는 비례 연봉 100%를 주장하며 사무국의 제안을 거절,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USA투데이는 “구단들은 선수노조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뜻을 모았다”며 “이제 사무국이 일정을 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제 메이저리그 일정은 록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정하게 된다. MLB내 트윙크 존 헤이먼 등 현지 언론은 50경기 정도를 치르는 시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0경기 정도가 구단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선수들의 비례 연봉을 지킬 수 있는 경기 수로 알려졌다.

개막 시기는 7월 중순이 유력하다. 9월 말 정규시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포스트시즌을 치르는 일정일 것으로 보인다.

R.마드리드, 라리가 우승경쟁 이어가

안방에서 에이바르 3-1 완파 리그 선두 바르샤 2점차 유지

레알 마드리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뚫고 재개된 라리가 첫 경기에서 에이바르를 완파, 라이벌 바르셀로나와의 우승 경쟁을 이어갔다.

레알 마드리드는 15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이바르와 2019-2020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8라운드 홈 경기에서 3-1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17승8무3패(승점59)가 된 2위 레알 마드리드는 전날 마요르카를 4-0으로 완파하고 선두를 지킨 바르셀로나(승점 61)와의 승점차를 2점으로 유지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4분이라는 이른 시간에 나온 토니 크루스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전반 30분 라모스의 추가골과 37분 마르셀루의 해트트릭까지 나오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15분 에이바르에

1골을 내줬으나 더 이상의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 승점 3점을 추가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기존의 홈 경기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유소년팀이 활용하는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스타디움에서 시즌 잔여경기를 치러야 한다.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스타디움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6000석 규모의 작은 경기장이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은 큰 차이 없었다.

한편 이날 경기는 지단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의 지휘봉을 잡고 치른 200번째 경기였다. 지단은 2015-16시즌부터 2017-18 시즌까지 감독을 맡았고 지난해 3월 다시 돌아와 올 시즌을 전두지휘하고 있다.

지단은 에이바르전을 포함해 132승42무26패라는 대단한 성과를 남기고 있다.

이 기간 지단은 2015-16시즌부터 2017-18시즌까지의 UEFA 챔피언스리그 3연패와 2016-17시즌 라리가 챔피언 등 총 10개의 트로피를 팀에 안겼다.



곡성군, 어르신 게이트볼대회 개최

코로나19 철저한 방역 속 오는 29일까지 열전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철저한 방역 속에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어르신 게이트볼 권역별 자체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군 체육회와 곡성군 게이트볼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11개 팀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우승상금이 있는 큰 대회가 아닌 지역 내 게이트볼팀 간의 친선경기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회를 열지 못하다가 오랜

만에 개최된 만큼 참가 팀들의 열의가 뜨겁다.

경기에 참가하기 전 선수들은 발열체크와 소독을 거치고, 경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가며 대회에 임하고 있다.

참가자 A씨는 “그동안 게이트볼 대회가 목말랐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조금 불편하지만 철저한 방역 속에서 즐거운 화합의 장을 즐기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전남드래곤즈 경기력 향상·부상예방 위해 스포츠테이핑 업체 세븐윙스스포츠와 협약

전남드래곤즈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예방을 위해 스포츠 테이프 전문 업체인 세븐윙스스포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세븐윙스스포츠는 전남 드래곤즈 선수들이 훈련 및 경기 시 사용하는 스포츠 테이프를 1년간 무상공급하기로 했다.

세븐윙스스포츠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테이프는 천연광물질에서 나오는 자연 원적외선을 스포츠테이프에 적용하여 만든 제

품으로 일반 스포츠테이프에 비해 혈류개선 효과와 통증 감소 효과가 우수하다.

세븐윙스스포츠는 한국패션쇼핑물 협회 올해 네티즌 인기 최우수 소핑몰상 수상(2010), 코리아 패션대상 장관상(2018)을 받았으며, SBS리얼농구예능 ‘핵심타이거즈’에 출연해 발군의 농구실력을 선보인 모델 문수인이 스포츠브랜드 세븐윙스스포츠의 전속모델로 활약중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KIA 류지혁 햄스트링 파열 2주 후 재검진...내야 비상

KIA 타이거즈의 활력소 역할을 해내던 내야수 류지혁(26)이 부상으로 전열을 이

탈한다. KIA 내야에 비상이 걸렸다.

KIA는 15일 “어제 허벅지 부상을 입은 류지혁 선수가 MRI 검진을 받은 결과 왼쪽 대퇴 이두근(햄스트링) 파열 진단을 받았으며 2주일 뒤 재검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